

Dr. Jeffrey Niehaus, 성경 신학, 세션 7, 모세 언약 2부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 2부에 대한 세션 7입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을 소개하는 마지막 강의를 그것의 교육적 목적, 즉 그리스도를 향한 교육적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 언약의 어떤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백성을 구성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그런 다음 그들을 법이 있는 백성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또 다른 비교적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정복입니다.

글쎄요, 정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요. 그리고 언약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낫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집트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노예로 섬기는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큰 소유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너는 평화롭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후손은 사대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그 온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때때로 사람들은 정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 대해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은 틀입니다.

오거스틴, 저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핵심 요점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충분한 도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구축함 중 하나의 측면에 구멍을 뚫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비례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가의 수도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민간인과 비전투원에 대한 대우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글썄요, 우리가 정복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발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도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발이 없다면 비례적 대응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투원은 어떨까요? 글썄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하세요, 남자, 여자, 아이들. 꽤 심각해 보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집단 학살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쾌하거나 원망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은 원망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그들의 반항과 죄에 대해 원망을 품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몰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온 땅의 심판자가 옳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우리가 그 이유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와 함께 감독 사역을 하던 학생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 번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모든 기독교인이 마음속으로는 보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온전한 척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개요로 살펴볼 몇 가지 사항이 있고, 그런 다음 핵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언약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는 심판하고 패배시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박하는 원수인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백성을 사용하여 그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모세와 같이 이집트인,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이러한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은 정의롭고, 라합의 반례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나안인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에서 핵심 문제입니다. 라합은 큰 예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에 대한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희 때문에 두려움에 녹아내리고 있음을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시내산에서 행한 일을 들었노라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노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용기가 떨어졌노라

주,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 위, 땅 아래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계시적인 진술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의 이 진술, 주,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 위, 땅 아래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라합의 신앙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31에서 그녀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이런 개념,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 위나 땅 아래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여기서 본격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유일한 참신이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판테온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라면서 접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라면서 접했던 종교적 개념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 수정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1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 모든 것 중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훼, 당신의 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글썬요, 만약 그들이 모두 안다면, 왜 그들은 모두 그녀가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그 편에 서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반응은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루가복음 18:8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상 그가 돌아올 때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자가 돌아오실 때, 그가 오실 때, 그는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 것입니까? 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을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거짓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때가 오면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빠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멘하거나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날 세상은 의로움과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면에서 완전히 불의할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라합은 그녀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사실 그 구절도 있어서 좋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건너갈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겁니다. 만약 미래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글썄요, 주님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들을 멸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민족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시고, 많은 민족들, 곧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 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과 종유석과 석순, 너희보다 크고 강한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네 아들에게 주지 말라. 글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네 아들들을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요,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서 너희를 빨리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올라미가 될 것이다, 등등.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추측해서, 들어라, 예방책으로 이것을 하라, 알다시피, 그들이 괜찮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사업, 가족이 있고, 알다시피, 그들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그들의 영적 지향이기 때문이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페오르에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도록 길을 잃었고, 재앙적인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지도력과 거짓된 영향력을 얻으면 사람들을 길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 양을 돌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한 번은 그 아이디어를 싫어하는 까칠한 뉴잉글랜드 사람과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글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는, 글썄요, 양들은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죠, 글썄요, 영적으로 우리는 멍청해요, 아시죠, 주님 없이, 그의 목양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바로 이 일의 이유이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의 심판자는 옳은 일을 할 것이고,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종말론적 심판의 한 유형입니다 . 글썄요, 이스라엘이 혼자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것이 사고방식이었고, 제가 말해야 할 것은, 그것이 13장과 14장에서 큰 좌절을 가져온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무서운 적이나 적의 보고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파라오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집트 전체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네 눈으로 표적과 기사, 강한 손과 뻗은 팔 등을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더욱이 자연적 작용자를 사용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벌을 보내어 네게서 숨은 생존자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되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그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요, 들짐승이 너희 주위에 많아질까 두렵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적인 고려 사항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할 또 다른 요점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에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 그의 저항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원하셨던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의 땅 북쪽 절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항하고 전쟁을 벌여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은 심판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방해하실 수 있으며, 이것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죠, 몇 년 전 영국에 있을 때 덩케르크에 대한 일화를 기억합니다. 모든 영국군이 좌초되었을 때 말입니다. 약 30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약 20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판처 사단과 히틀러는 갑자기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군인들, 장군들은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덩케르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서 이 모든 크고 방대한 영국군을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의 군대가 너무 빨리 움직였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는 연합군의 다른 군대가 그들을 포위할 수 있고, 그들의 위치를 알 수 없고, 그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글썄요, 그 덕분에 크고 작은 모든 배들이 영국에서 건너와 덩케르크에서 온 군대를 데려올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싸우러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즉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심리적으로 간섭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틀러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거나 세계를 지배하려는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신이 심리적으로 그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힌트일 뿐이고, 이것은 인간이 신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영심이 강한지, 또는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약속의 땅 남부의 정복, 중앙 정복 이후의 결과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의 작전으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번역을 '그는 한 번 정복했다'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를 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번, 한 번, 또는 한 번의 타격으로 의미할 수 있어서 약간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 정복했다'로 번역하면, 사사기 1장에서 이것이 지속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그림은 약속의 땅 남부를 정복하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승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와 싸움이 필요했고, 이는 이치에 맞습니다. 글썬요, 좋아요, 그들이 거기에 있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물론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우상은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명기 12장에 경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을 파괴하세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글썬요, 이게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의 명령을 깨뜨리고, 그들의 신성한 돌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베어내고, 그들의 우상을 불에 태워야 해요. 신들의 형상을 불에 태워야 해요. 그 위에 있는 은과 금도 탐내지 말고,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걸려들 거예요.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2장에서 말했듯이, 당신이 쫓아내는 민족들이 신을 경배하는 모든 높은 산과 언덕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라.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정확히 이렇게 돌아갔다. 그들은 산당에서 경배했고, 주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하고, 불에 넣으라. 당신은 그들의 방식대로 주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나중에 그렇게 했다.

그들은 산당에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의 전투에서 우상을 버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당신은 또한 역대기에서 그가 그것들을 불태웠다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교도 군대가 다른 군대나 다른 왕국을 정복했을 때 아시리아인들이 이에 대한 가장 완전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한 왕국의 우상을 포로로 잡았고, 때로는 아시리아의 최고 신인 아슈르의 이름을 우상에 새겼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정복된 왕국의 사람들이 내 가신인 것처럼, 아시리아 왕의 가신인 것처럼, 그들의 신은 내 신 아슈르의 가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고, 진짜 신을 대표하고, 구체화했으며, 그래서 우상을 간직했고, 이제 우리가 우상을 물리쳤으니, 우상이 우리 편이고, 미래에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전부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불태우고, 사로잡지 말고, 간직하지 말고, 파괴해야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경고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말고, 그녀와 더럽히지 말고, 당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맏아들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눕듯이 눕지 마십시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더럽히기 전에 쫓아낼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죄의 연작이 있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그들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땅은 이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나는 그 죄로 인해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 그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방식이지만,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며,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처럼. 신명기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나는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멸망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하면, 그는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주님이 당신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끝 부분에 있는 언약 저주의 본문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타이트 조약처럼 가신이 불순종하면 닥칠 저주의 긴 목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주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 종양, 굶음, 상처, 가려움 등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당신에게 가져오실 것이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이집트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로 배에 태워 다시 보내실 것이다. 내가 너희가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한 여행 말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남녀 노예로 팔릴 것이지만,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남방 왕국을 정복한 후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이교도처럼 행동한다면, 주님은 사실상 가나안 사람들과 이전에 이집트인들과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좋아요, 글썄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언약, 모세 언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과 역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학계는 구약 역사나 그것이 대응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모델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고대 세계의 계약이나 조약의 영역에서 많이 나왔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역사 서술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근동에서 역사 서술을 발견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조약의 역사적 서문에 있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에서 역사적 서론은 종종 가장 긴 섹션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언약에 들어가기 전의 관계의 역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조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히타이트와의 패러디 조약입니다. 왕실 히타이트 왕실 연대기는 히타이트, 종주국, 반항적인 가신들 간의 관계와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연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제 생각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게 고대 근동의 역사예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지금 당장은 구약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일련의 신-인간 언약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언약 하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적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만들어질 때, 그들은 또한 역사적 서론을 가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노아 언약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특히, 당신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서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당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신 일, 가신을 위해 행하신 일의 관점에서 어떤 역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하에서 그 이후의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노아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에스카톤까지 계속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서사적 기록은 구약 조약에 선행하며 조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경우에 분명합니다.

서사적 기록이 조약을 따르고 가신과 계약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 온 것입니다. 역사적 서문이 때때로 포함되거나 서론이 때때로 왕의 연대기에 포함됩니다.

역사적 서론 자료는 계약의 일부이며 계약이 끊어지기 전의 사건에 대한 역사를 제공합니다. 분석적 설명은 계약이 끊어진 후의 사건에 대한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기서 예시로 들겠습니다. 하지만 1권의 서론에서 저는 이것과 그것의 본질을 도표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토라가 있고, 아브라함 언약 하의 삶이 있고, 그것은 실제로 새 언약이 자르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항상 좋은 일이고, 고대 근동에서 일치하는 장르를 찾을 수 있다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거나, 그것들에 비추어 구약성경이나 성경을 볼 때, 그것들이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원리, 데이터를 가장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역사 서술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언약과 관련이 있으므로 역사 기록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용어로 말하자면, 만약 우리에게 아담 언약이 있다면, 모든 세계 역사의 기초는 그 언약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행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역사, 나쁜 역사,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신성한 인간 언약의 현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성경은 모두 하나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 언약 하에서 왕의 가신들의 행동을 묘사한 방대한 왕실 연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적 설명과 기록은 위대한 왕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 사이에 성전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기 위한 개입 전쟁, 따라서 우리가 특징지은 대로, 그러한 반복적인 활동의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했듯이, 선지자는 그러한 신성한 개입과 언약 만들기, 언약 관리, 그리고 언약 하에서의 삶의 관리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실제로 성경의 역사학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또한 예언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언약은 우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언약 중재자 선지자들을 통해 제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선지자들도 언약 소송의 사자이지만, 모세 언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야 할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내와 슬프게도 예언적 질책과 소송을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예언의 제도는 확실히 언약 중재자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우리가 나중에 언급했듯이,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리고 특히 나중에,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언약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료인 오경은 모세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해 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일종의 자유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예언적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적 인도에 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그들에게 단서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경에는 그런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글썄요, 여기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반대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못하니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아시다시피,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어때요? 그가 말을 잘한다는 걸 알아요. 그는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줄 것입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도록 도와드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둘 다 실현됩니다. 이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 마치 그가 당신의 입인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신인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적 역동성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신이 될 것이고, 아론은 모세에게 선지자가 될 것이고, 파라오는 청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역학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선지자를 통해 청중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모세는, 아시다시피,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파라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적 역동성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이며, 예언적 역동성과 우리가 설명한 주요 패러다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지시입니다. 누군가가 의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글쎄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예언적 권위의 독특성이 도전을 받았을 때, 주님은 미리암과 여기서 도전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환상으로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꿈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종 모세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실합니다. 그와 함께, 나는 얼굴을 마주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직접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그는 그의 죽음의 여운, 영광을 보았지만,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데, 수수께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주님의 형상을 본다. 그럼 왜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글썄, 여기 모세는 분명히 다른 리그에 있다.

그는 계시할 것입니다. 주님은 꿈, 환상, 꿈으로 다른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수수께끼나 어두운 말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범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둡고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환상과 말을 제안해 봅시다. 글썄요, 성경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경우에는 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hazon* 은 비전이라는 단어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을 보는 동사 *that haza* 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오래된 용어 중 하나는 그 동사의 분사, 호스, 선견자, 우리가 말하듯이, 선견자, 초자연적인 영역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절대 안 돼, 호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용어, 하존 은 분명히 책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존 이라는 용어는 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광범위하게 계시적인 정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것 중 일부는 분명히 환상적입니다. 이사야 2장은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5는 그 전반적인 비전이나 계시의 일부이며 , 어둠의 말로 잘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내놓았을 때,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아이가 주어지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불릴 것이요, 또는 그는 그의 이름을 놀라운 자 , 조연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육신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없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요한 복음에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다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숨겨진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둠의 말의 묘사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저도 그 것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비전. 우리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썬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열린 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끔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눈이 뜨이고 갑자기 하늘이 뚫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이것의 좋은 예입니다. 에스겔은 케바르 운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폭풍 구름, 폭풍 테오파니가 왔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는 전차 왕좌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 그에게는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린 비전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야간 환상, 혹은 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아마도 그의 눈은 감겨 있었을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게 일어난 환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의 카리스마적인 스타일이죠. 하지만 사실, 좀 웃기는 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야다(Yadah)인데, 손(hand)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제 말은, 이 일은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과 면도날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여기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 구세군에 있는 한 남자가 주님과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프로이트식 실언이겠죠? 저는 목사님께 다가가서, 글썄요, 제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가서 기도했고, 주님은 그에게 안도감을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런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지만, 그는 몇 주 동안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비전이에요, 눈을 감고서 말이죠. 그러니 이것들은 성경적 범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라,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환상, 꿈, 수수께끼 같은 말로, 어쩌면. 하지만 모세는 다른 리그에 있다. 그는 내 면전에 서 있다.

그는 나에게서 직접 듣는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다. 알겠어

나중에, 신명기에서 언급했듯이, 신명기 18장에서 주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도 없고, 흑마법사도 없고, 영매도 없고, 등등.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장면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만약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예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은 선지자에 대한 다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듯이, 곧 우상 숭배적 맥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예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시를 볼 수 있는데, 곧 모세가 사라지고 예언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올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글썬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썬요, 신명기 13장은 두 구절 중 첫 번째이고, 거기서 그 구절을 이어갑니다. 선지자나 꿈으로 예언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적이나 기사를 알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글썬요, 거기서 멈추도록 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기적적인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썬요,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글썬요, 분명 충분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좋아요, 그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도 그것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다른 신들을 따르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자, 그들을 경배하자고 하면, 글썬,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하며, 그를 지키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반역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너를 노예의 땅에서 구원하셨다. 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따르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돌이키려고 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 동사는 문자 그대로, 너희 가운데서 악을 태워야 한다. 글썬, 알겠습니다. 예언자나 몽상가는 무언가를 예언하고,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자. 히브리어 관용어는 따라가다이고, 그것은 언약 관용어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다라는 관용어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언약의 관용어입니다. 가신은 종주권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무라비에 대한 편지에서 열 왕이 바빌론의 함무라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에게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의 리드를 따릅니다.

그는 그들의 종주권자이고, 그들은 그의 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언약적인 관용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을 왕으로, 종주권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역입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에 동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언약의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바알과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 심판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왕국의 형태와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 언약 하의 왕국의 형태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현대 국가에서, 누군가가 반역적인 행동, 왕의 전복, 정부의 전복을 조언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있는 그대로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갖도록 허락하신 국가의 합법적인 지도부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이것을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요점은 반역자가 반란을 계속 조장하도록 허용한다면 반역은 기존 질서의 파괴와 전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경이로움의 표징에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썄, 이 사람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왕국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조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러나 왕국의 형태, 즉 국가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왕국의 형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사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것을 읽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글썄요, 봐요, 우리나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영원한 정죄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느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니,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지금 다시 말하지만, 만약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한다면, 그는 영원히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형태, 구약의 형태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사형을 요구합니다.

왕국의 신약적 형태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떨까 생각한다면, 글썄요, 그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듯이, 그들이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경고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 없이 주님의 만찬에 부적절하게 참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잠이 들었고, 저는 그것이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심판을 선언할 때, 그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선지자로서 주님이 지금 하실 일을 선언하고, 주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형태는 심판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듯이 전쟁의 형태에도 해당합니다. 구약의 전쟁 형태는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수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적들에 대항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지금 왕국의 형태는 교회이고 , 그래서 우리는 무기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슬람의 문제입니다.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서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아니며,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전쟁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우리는 역사학의 언약적 기초와 예언의 언약적 기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시에도 언약적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독일 학자인 헤르만 군켈이 개발한 범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Gunkel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을 살펴보고, 시편 중에는 요소 면에서 매우 유사한 시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다양한 시편 장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는 그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범주를 사용하는 더 현대적인 책은 접근 방식에서 상당히 Gunkelian 인데, Bernard Anderson의 *Out of the Depths*입니다. Gunkel의 유일한 걸림돌은 시편과 관련하여, 그는 실제로 매우 자유로운 학자 유형이었고, 예언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여겨져 온 모든 시편을 왕의 시편으로 취급합니다. 즉, 그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약 성경 저자가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사용하여 그렇게 부르거나 시편 2편, 히브리서 1편에서 태양을 천사에 비유한다면, 그는 어느 천사에게 시편 2:7을 인용하여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했는가? 글썄요,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대한 매우 비영적인 관점이며 예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Gunkel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알려드리자면, Gunkel이 문학을 보는 방식 측면에서 두 가지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헬레니즘 세계, 즉 그리스-로마 세계를 연구한 학자 에드워드 노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튼의 접근 방식은 스타일이 실제로 저자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장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리아에는 왕의 연대기 기록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연대기를 천 년 간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본 문구와 같은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달랐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개성, 상상력, 새로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시편에 나타났습니다. Gunke1은 우리가 여기 같은 장르의 시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자가 썼을 수도 있지만, 같은 장르입니다.

아마 누구나 찬송가를 작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형식이죠. 신이나 어떤 신을 찬양하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고, 다시 부르세요. ABA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작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좋은 곡을 작곡할 수는 없겠지만, 장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와 관련해서는, 그는 중세, 독일 ,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동화, 전설, 사가를 수집하던 독일의 그림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썄요, 이런 가부장적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것은 전설이고, 사가예요. 그 안에 진실의 핵심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창세기의 역사성에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Gunke1과 혼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에 오면, 그는 몇 가지 좋은 범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일부는 종주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즉위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야훼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왕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편입니다. 왕의 시편 또는 우리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왕의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은 아마도 작곡되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작곡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진짜 아들을 예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편 2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면, 그것은 양자의 아들됨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것인데, 우리가 보게 되듯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 히브리서 1장, 보세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원사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검토합니다.

글쎄요, 종주권 하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한 노래와 공동체의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는 공동체나 개인이 고난, 공격, 부당한 억압 등을 겪을 때 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리고 보통은 당신이 저를 구해 주시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무엇이든지, 희생을 바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 주님께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알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시편, 개인적인 감사 등. 지혜 시와 전례 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시. 글썄요, 우리는 지혜 시를 언급했고, 그것은 우리를 지혜의 언약적 기초로 편리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주어진 언약적 계시에서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 당신은 그에 대해 뭔가를 알고, 그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는 물론 우리가 말한 의미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조차도 아시리아어로 팔라후를 사용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아슈르가 나를 그의 경외자, 즉 그의 숭배자로 선택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를 적절히 두려워하지만, 당신은 그를 존경합니다. 당신은 그와 당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우리에게 전해진 바와 같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언약적 계시, 즉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혜와 이해력을 모든 이교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법령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분명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 선교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법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잘 대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의 교육적 본질로 이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새 언약에서, 그 거래가 더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내 목적은 그들이 마음에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한 이해의 충만한 부를 갖게 하여 하나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즉,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나는 미래의 어느 날, 유배 후 어느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를 움직여 내 법과 법령을 따르게 할 것이다.

모두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옛 언약 하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옛 언약 하에 있었을 때 에스겔 36장에서 미래로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27.

그러나 교회에서도 한 사람에게서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용어, 지혜의 메시지와 지식의 메시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의 단어 또는 지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성령이 여전히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신학이 그것을 배제한다면,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타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소한 초기 교회에서 확실히 사실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지식의 말씀은 교회의 선지자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의 계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폭로하고 회개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인도의 말씀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든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든, 그것이 제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메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새 언약의 놀라운 역동성의 일부이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다윗, 위대한 다윗의 더 큰 아들, 즉 진정으로 위대한 다윗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 다윗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언약에 이르기 전에 다윗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 언약 2부에 대한 세션 7입니다.